

2002년 화학산업 재해 사망 72명!

노동부, 전체 산재 근로자 8만1911명 ... 경제적 손실 10조원 추정

2002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143명 감소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2605명 중 화학제품, 의약품, 고무제품 등 화학관련 산업에서의 사망자가 85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2년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은 모두 100만2263개이며, 이 곳에 일하는 근로자 1057만1279명 가운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8만191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1년과 비교하면 사업장 수는 9만2802개 늘어났으나 근로자수는 9907명이 줄었고, 재해자수는 477명이 증가한 것이다. 재해율은 0.77%로 전년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10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4000억원이 증가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 1조7000억원과 비교할 때 약 6배에 이르렀다.

2002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605명으로 전년대비 143명 감소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인 사망만인율(사망자수/근로자수×10000)도 2.46으로 전년대비 0.14p 감소했다.

이 가운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378명으로 전년대비 173명(11.2%) 감소한 반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1227명으로 30명(2.5%) 증가했다.

업무상 질병 사망은 주로 뇌심혈관 질환에서 증가해 760명에 이르렀고, 추락 464명, 진폐 386명, 사업장의 교통사고 149명 순으로 발생했다.

또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66명(25.6%)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641명(24.6%), 광업 396명(15.2%) 순이었으며, 건설재해 사망자 중 49.2%가 추락, 광업 사망자의 90%가 진폐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질병자수는 5417명으로 전년대비 236명(4.2%) 감소했다.

난청, 중금속 중독 등에 의한 직업병자는 1351명으로 전년대비 191명(12.4%), 뇌심혈관 질환자, 근골격계 질환자 등 작업관련성 질병자는 4066명으로 전년대비 45명(1.1%) 각각 감소했다.

산업재해 현황(2002)

구 분	2002	2001	증 감	증감률(%)
○사업장수(개소)	1,002,263	909,461	92,802	10.20
○근로자수(명)	10,571,279	10,581,186	-9,907	▽0.09
○재해자수(명)	81,911	81,434	477	0.59
-사망자수	2,605	2,748	-143	▽5.20
-요양자수	79,306	78,686	620	0.79
-업무상사고자수	76,494	75,781	713	0.94
-업무상질병자수	5,417	5,653	-236	▽4.17
○재해율(%)	0.77	0.77	0.00	0.00
○근로손실일수(일)	54,011,503	54,550,424	-538,921	▽0.99
○산재보상금(100만원)	2,020,335	1,744,539	275,796	15.81
○경제적손실액(100만원)	10,101,675	8,722,695	1,378,980	15.81

전체 제조업 산업재해 사망자 중 화학제품 제조업에서의 사망자수는 72명으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업종의 사망자수 80명에 이어 2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 화학제품 제조업 1.12%를 비롯해 유리 제조업 1.75%, 고무제품 제조업 1.38% 등의 재해율도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 0.7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발생현황(2002)

(단위: 명, %)

구 분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만인율
총 계	10,571,279	81,911	2,605	0.77	2.46
화학제품 제조업	264,124	2,962	72	1.12	2.73
의약품/화장품향료 제조업	38,349	163	3	0.43	0.78
코크스/석탄/가스 제조업	80	2	0	2.50	0.00
고무제품 제조업	54,608	753	10	1.38	1.83
도자기제품 제조업	11,371	120	9	1.06	7.91
유리 제조업	24,245	424	7	1.75	2.89
요업/토석제품 제조업	31,058	541	15	1.74	4.83
시멘트 제조업	7,416	82	5	1.11	6.74
비금속광물/금속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업	189,729	5,867	80	3.09	4.22

전체 산업재해 중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서의 전체 재해의 71.2%가 발생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22.28% 발생해 재해율이 1.11%에 이르렀다. 2001년과 비교할 때 5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2091명이, 특히 1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1993명이 증가한 것이다.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재해도 153명 증가해 다소 늘어났는데, 이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등 작업관련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작업관련성 질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협착, 전도, 추락, 충돌, 낙하·비래 등 5대 재해형 반복 재해가 전체의 71.77%를 차지했으며, 절단재해(3563명)는 전체 재해 중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금속제품, 목제품, 화학제품 제조와 건설업 등 절단재해 위험업종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에 비해 52%나 늘어났다.

한편, 산업재해는 입사 근속기간 1년 미만 재해자가 전체의 60.59%를 차지했으며, 특히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재해가 50.49%를 차지했다.

또 40세 이상 중장년층에서 전체 재해의 59.13%가 발생했으며, 요일별로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각각 16.61%, 16.02%로 가장 많았고, 일년 중에서는 12월과 5월에 각각 10.99%와 9.55%가 발생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3/28>